

포천시 LPG충전사업 허가에 주민반발

‘도시계획추진되면 이전하겠다’ 조건부 허가



포천시가 내촌면 읍현리에 LPG충전사업 허가를 내주자 주민들이 결사반대 의지를 밝히고 있다.

포천시가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가스충전사업을 허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선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내촌면 주민일동이 포천시를 상대로 제출한 LPG충전사업 허가 취소 건의문에서 밝혀졌다.

이 건의문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13일 포천시 내촌면 읍현리 640번지에 프로판 가스 150톤, 부탄가스 57톤을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의 LPG충전시설을 갖춘 LPG

충전사업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내촌면 주민들은 "LPG용기 1개만 폭발해도 그 일대는 전경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는데 내촌면 읍현리에 허가된 충전소는 무려 저장용량만 200톤이 넘는 대규모 시설로서 폭발시 주변을 불바다로 만들어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등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극히 위험한 시설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LPG충전시설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단히 위험한 시설임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 허

가한 것은 허가 절차를 결한 부당한 허가라고 주장했다.

또 LPG 충전소가 허가된 지역은 내촌도시계획구역 내로서 장래에 대단위 택지조성 등 개발될 지역이나 위험물이 설치되면 인근지역은 물론 내촌면 전 지역의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가 하락등 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충전소 설치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가된 LPG 충전소는 포천시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인근시에 가스 공급을 목적으로 인근시에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내촌면민의 생명을 담보로 타 지역 주민을 위한 충전소 허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반발하자 포천시는 사업자에게 내촌면에서 도시계획이 추진되면 이전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천시는 읍현리4리에 LPG충전사업신청서가 지난 6월25일 접수되자 5일만인 6월30일에 허가를 내주었으며 7월22일 농지전용허가과정에서 주민들이 알게 된 것으로 알려져 밀실행정의 표본이 아니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포천경찰서는 혁신마인드구축을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혁신과제를 적극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혁신마인드 구축 위한 확대간부회의

“중단없는·쉽없는 혁신과제 추진할 터”

포천경찰서(서장 최원일)는 지난 5일 경찰서 사회회의실에서 각 과·계장, 지구대장, 특수차출소장, 사무소장, 민원담당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경찰 지향을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당면현안업무지시와 함께 포천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15개 혁신과제 중 중점추진과제인 ▶경찰서 간부가 지역경찰 상대 현장진출 조간담회, ▶범죄단 이등로 차단을 위한 합동 목검문소 운영 등 2개 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서장은 합동 목검문소 운영으로 시행전후와 비교 범죄 검거실적대비 60% 증가로 범죄분위기가 상당부분 일소됐으며, 향후로도 중단없는, 쉽없는, 내실있는 혁신과제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혁신이란 “내가 살아온 과정 중 불편했던 점, 불합리했던 점 등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혁신의 출발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내촌중학교에 인라인스케이트장 開場

대회 개최로 동호회 활성화 등 계기 마련

학교운동장을 중심으로 길이 360m, 폭 3m 규모로 중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개설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 학년별로 체육시간에도 활용되는 등 학생들의 운동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도 오픈 하여 오후 5시 이후엔 언제든 활용 가능하며 야간에도 인라인스케이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에는 축구장을 위해 설치된 조명등을 이용해 내촌면민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해 축구경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

공간활용 아이디어도 돋보인 다.

내촌중학교 오영근 교장은 “농촌학교로 현대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인라인스케이트 교육을 통해 앞서가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포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개설하게 되었다”며 “인라인스케이트장 개설에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과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내촌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장 개설로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동아리 활성화는 물론 학교 체육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희 주부명예기자 gk2151@hanmail.net



내촌중학교가 지난 10월에 개설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학생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55년만에 접한 아버지 소식

6·25 당시 덕천전투에서 전사, 남다른 전우에 보여

살아생전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소식을 5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접하게 된 애뜻한 사연이 알려져 주위 사람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인천에서 거주하는 김정란(55)씨로 김 씨는 6·25전쟁 당시 오투기 번개부대 중대장으로 참전했다 평안도 덕천지구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한 故 김

일환 소령(육사 8기)의 유일한 혈육이자 유복자이다.

김씨가 55년동안 사진으로만 보았던 아버지의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은 한 달 전쯤 지하철 열차에 있던 노인분들의 대화에서 이분들이 오투기 번개부대 6·25 참전 전우회이며, 조만간 56주년 부대 창설기념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이 부대 출신이

라는 것만 들어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군 생활 모습이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던 김씨는 처음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김씨는 부대에서 보낸 중이던 전사자 명부에서 그리운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참전 전우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전투에 참가했던 부하들이었으며, 생전에 자신보다 부하와 나라를 먼저 생각하셨던 아버지가 전투 중에도 아내와 임신 중인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자주 표현했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 주위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아버지의 소식을 직접 접한 김씨는 “오늘에서야 가슴에 응어리졌던 답답함이 풀린 것 같고, 자랑스런 군인 아버지를 자식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오늘 만난 참전 전우회원들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매년 부대 창설기념행사에 참석할 것”이라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부대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3일 부대창설 제56주년을 맞이한 오투기 번개부대는 매년 창설 기념행사 때마다 부대출신 6·25 참전 전우회원들을 초청해 기념식과 오찬을 함께 하고 장비진열과 부대개방 행사 등을 갖고 있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독자기고 - 김은숙

산정호수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누가 저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주실겁니까?

본인은 11월 7일 12시경 산정호수근처에 드라이브하러 갔다가 관리직원으로부터 매우 심한 불쾌감과 기분 나쁜 일을 당했습니다.

포천 이동·일동에서 점심 식사를 할 겸 여러 식당을 물색하고 있던 중에 산정호수 매표소에 다다르자 그 관리 직원은 무조건 표를 끊어야 했습니다. 어디를 가는 것이냐구 5번이나 물고요.

본인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산정호수에 간다는게 아니라 이동 쪽으로 분명히 비켜 가서 식사를 할게다.”라고 말했지만 그 관리직원은 의심의 눈빛과 짜증스런 눈빛으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냐?”고 매번 기분 나쁜 말투, 눈빛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가며 말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고국)땅을 밟은 지 얼마 안 되는 재미교포입니다. 그나마 제 조국에 애정이 있는 사람 역시 매우 기분 나쁜 일 일 텐데...

global tour를 추구하는 오늘날..한국을 찾은 외국인에게 과연 얼마나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을까? 하는 매우 아쉬운 한숨만 나오게 하는군요..

초행인 저에게 좋은 곳(점심을 먹을 수 있는곳)을 알려주기는커녕 막무가내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냐고 하면 제가 머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한번도 오지 못해왔던 포천이건만...

더욱더 제가 불쾌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직원이 저를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 다른 직원에게 무전으로 제 차명과 차량번호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큰소리로 말이지...

저는 그날 그 직원이 단지 직원의식이 투철해서 행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힘듭니다. 저 말고도 다른 관광객에게 이런 치욕을 주었다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천 관광 신문에 어렵게 글을 올립니다.

산정호수에 입장도 하지 않은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해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도 좀 알아봐 주십시오..

국민 관광지로 유명한 산정호수가 그 관리 직원 한 명으로 인하여 관광객으로부터 불쾌감을 갖게 했다면..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3일 오투기 번개부대 창설기념식에 참석한 김정란씨가 부대 지휘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첨단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전세계 빅타이 패션을 주도하는 ‘Excalibur’

“독특한 컬러, 세련된 디자인으로 한층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양문공단에 등지를 들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인정 받는 기업이 되고자 전 임직원들은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엑스칼리버 전경.

■엑스칼리버 연혁

- 1986. 3. 15. 미국 인터내셔널 엑스칼리버 설립
- 1989. 11. 20. 엑스칼리버 뉴욕지사 설립
- 1994. 3. 8. ㈜엑스칼리버 서울 현지법인 설립
- 1994. 12. 3. ㈜엑스칼리버 서울 포천공장 준공
- 1995. 11. 30. 무역의날 US\$5,000,000 수출탑 수상
- 1995. 11. 30. 통산부장관 표창(대표이사 개인자격)
- 1997. 1. 3. 전 직원 컴퓨터화 실시 및 인터넷 및 회사 컴퓨터 설치
- 1998. 6. 25. 홍보발자 설계제조 유한공사 중국 현지법인 설립
- 1999. 3. 6. 엑스오 벵웨어(주) 한국 현지법인 설립
- 1999. 3. 10. 홍콩 세븐(주) 홍콩 현지법인 설립
- 1999. 10. 5. 제일은행 유망중소기업체 지정
- 1999. 11. 16. UNICEF 상품등록 취득

- 공장 : 경기도 포천시 영종면 양문리 1001-2
- 전화 : 031)542-6695 / 팩스 : 031)532-6616
- 대표 : 아브라함 기장 / 상무이사 : 유은석